

#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현실과 허구 - 기독교 시각 중심으로

## Reality and Fiction in the Visual Media - Focusing on the Christian Perspective

김성훈

한서대학교 연극영화학과

Seong-Hoon Kim(artkim@hanseo.ac.kr)

### 요약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와 미국의 록펠러 가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민간 기구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인물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전 세계 영상미디어를 통하여 지구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끼쳤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는 지구를 신 세계질서로 재편하려는 노력이다. 그들은 영상미디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에 걸쳐 많은 이미지를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와 그 효율성과 미래의 편리함을 전달한다. 이를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보면 신의 위치를 자신들이 장악하고 신의 존재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치환하여 이 지구를 신 세계질서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들의 욕망은 성서에서 적그리스도, 즉 사탄과 동일한 목적으로 보여 진다. 영상 미디어에 나타나는 현실을 기독교 시각으로 허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중심어 : | 영상 미디어 | 신 세계질서 | 현실과 허구 | 기독교시각 |

### Abstract

The Rothschild family in the UK and the Rockefeller in the USA installed a number of private organization with which they could exert their influence on the world, recruited world renowned figured and spread out their arguments via global visual media worldwide. Their ultimate goal was to reshuffle the world in a new global order. They attempted to persuade people to accept their messages by reiterating them via their visual media. They deliver their own value of existence, efficiency and future convenience via their visual media regarding politics, economics and religion. If such is seen in a Christian perspective, they replace the place and existence of God with their own power and attempt to reorganize the world in a new global order. Their desire seems to be that of Anti-Christ, i.e. the Satan in the Bible.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at reality of visual media is fictitious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 keyword : | Visual Media | New World Order | Reality and Fiction | Christian Perspective |

## I. 서론

‘영상의 정글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생  
활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TV의 급속한 발달로 3D 영상으로 가정에서 영화  
혹은 드라마의 시청이 가능하다. 거리에 나서도 전광판  
이 영상물로 가득하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 폰에서도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

\* 이 논문은 2012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21207-003

접수일자 : 2012년 12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2월 20일

교신저자 : 김성훈, e-mail : artkim@hanseo.ac.kr

은 정보 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재미와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1].

TV뉴스에서 지구의 온난화가 탄소가스 배출로 말미암아 지구의 재앙이 다가 오고 있음을 연일 시사한다. 환경단체 혹은 환경부에서 조차 지구의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그 속도가 더 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탄소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를 거두어들인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는 태양의 흑점활동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태양활동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영향력을 끼쳐 온도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지구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에는 아무런 과학적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냉온탕을 들락거리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구의 산소는 70%이상을 아마존 같은 숲이 아니라 바다가 공급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스런 과학이 아닌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처음부터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였던 것이고[2], 바로 이런 점을 영상 미디어가 현실을 호도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허구를 진실로 포장하는 것이다.

런던 올림픽이 올해 성황리에 끝마쳤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를 보면 외눈박이 웬록과 맨드빌이다. 이것은 전시안(全視眼)제3의눈[3]을 상징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신 세계질서를 외치는 자들의 은밀한 영상미디어를 통한 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테마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기독교영화 혹은 종교를 다룬 영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극장에 가보면 온통 영성(종교)을 테마로 한 영화들이 상영 중”이라면서 “이러한 현상은 ‘시대정신’(zeitgeist)의 일부”이라고 분석했다.

헐리우드에서 개봉했던 종교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가족영화 “블라인드사이드”를 비롯해 코맥 맥카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더 로드(The road)”, 코미디영화 “거짓말의 발명(The Invention of Lying)”, 제임스 카메론 감독 SF영화 “아바타”, 리들리 스콧 감독

프로메테우스 등이다.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는 이유는 적절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인간심성의 금기를 조금씩 건드려 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사고를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하는 심리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도덕, 윤리, 민간신앙까지 아주 많은 금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신화와 같은 것으로 많은 예비관객들이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의 이미지들이 현실에서 영상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반복적으로 혹은 인상 깊게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본고는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현실과 허구를 기독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진실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의 영상미디어는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뉴스, 인터넷으로 제한한다. 이 연구는 영상미디어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만이 아님을 보여주어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영상미디어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현실을 세상에 어떻게 호도하는지, 신 세계질서를 부르짖는 자들의 의도를 밝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II. 영상미디어의 사회적 수용

### 1. 영상미디어의 본질

영상미디어는 ‘특정내용(contents)을 기계적인 수집, 제작, 처리를 통하여 생산된 콘텐츠를 다시 광학적, 전자적 장치로 재생하여 일정 시간, 공간에서 익명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로 정의 할 수 있다[4].

영상미디어는 21c 총아로서 전 인류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를 반증하듯 영상미디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정책, 법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영상미디어가 경제적, 산업적 의미뿐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영상미디어는 한 공동체의 의식, 시각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5].

이런 영상미디어의 발달은 사회발전의 역사와 인과적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영상미디어의 형태는 역사적 변화의 산물로서 정치적 자유화와 산업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결과라는 사회 중심적인 관점으로 분류 할 때 대중적인 흐름에 편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지 상징이거나 상징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자체와 텍스트 전체를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미는 곧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즉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기도 하다. 의미는 내면적 세계와 관련이 있으면서 객관적 세계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외화, 즉 표현, 생산되는데 이것이 곧 메시지의 형태를 띠게 된다[6].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매체의 의미 전달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미 생산 및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존 피스크(J.Fiske)는 전자를 과정학과(the process school), 후자를 기호학(semiotics : 표시와 의미를 연구하는 과학)이라 부른다[7].

영상미디어 수용자들의 매우 일반적이고 현저한 특징은 그것이 광대한 범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한 수용자(big audience)라는 말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애호하는 계층을 똑같이 특징 지워주고 있다.

공중이 방대해질수록 그만큼 더 수동적이고 무 선택적이며 무비판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또 효과삽입을 노리는 표준화된 생산품과 보다 쉽게 타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선택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공중을 미적으로 무관심한 감상 층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8].

인간의 체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사이의 역동적이고 섬세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험주체와 체험대상을 동시에 역동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체험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로로서의 영상미디어는 21C에 전 인류에게

공통된 의식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동일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영상에 대한 일상의 미적 인식을 나타내는 통속성에 내재된 범주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웃음의 해학성, 눈물의 감상성, 폭력의 선정성, 성의 관능성, 몽상의 환상성, 권력의 역사성이다. 오늘날 영상미디어가 표현하는 대다수 내용이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적인 요소의 관통이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9].

지금까지 서술한 영상 미디어가 영향력이 강한 것은 논리보다는 감성을 통해 자연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기 때문이다. 어떤 드라마가 다소 부정의(不正義)한 내용이라도 출연배우들의 연기가 멋지면 대중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곤 한다. 특히 영상 대중매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선정성, 퇴폐적인 내용을 시각을 통해 확연히 의식 속에 각인시키기 때문이다[10].

## 2. 기독교 시각의 현상

기독교 시각으로 영상 미디어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상 미디어를 규정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엄밀한 의미의 영상 미디어 같은 현대 용어가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오늘의 현실을 보면 영상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에서 마지막 때를 이르는 구절들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없으며 징조가 나타나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24장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말세의 때를 설명하신 말씀이다. 이처럼 성서에는 그 날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자연적인 징조와 종교적인 징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적인 징조를 보면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이

미 전 세계가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고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인한 인터넷으로 사람들의 지식이 왕성해진 사건을 말한다. 지구 역사 이래 2005년까지 쌓인 정보량의 10배가 2006년 한 해에 축적되었고, 2007년은 2006년보다 58% 증가한 정보량이 축적되었다. 우리는 지금 1년을 살아도 천년을 사는 만큼의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커다란 의식변화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6절 -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과 계략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국가대 국가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질 변화로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으로 물 부족한 국가가 늘어나며 이로 인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인류가 있음을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 보고 있다. 이미 재난은 시작 된 것이라 말 할 수 있겠다.

종교적인 징조를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조금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신앙으로 믿음의 변질됨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4장 4절 -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속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만 한국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0여명이 있었고 지금은 120여명이 된다. 자칭 예수라고는 안하여도 많은 사람을 능력과 이적 기사를 선보이며 미혹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 11절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며, 이러한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좋은 예로 중국의 문화 혁명 때를 들 수 있다. 많은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 교회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설교를 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문화 혁명이 일어나 교회가 14년 동안 문을 닫았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은 제일 이유 없이 미움을 많이 받는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죽이고 낮으로 목을 자른다고 한다. 회교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마태 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전도의 문을 굳게 닫은 회교국도 그 이웃 나라에서 방송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이 안 들어 간 곳은 없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주님 오실 준비는 다 된 것이며 그 날이 임박했다는 증거이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도 그리스도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이 적그리스도이다. 지금 이러한 양의 가면을 쓴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다. 타락한 교역자들이나 이단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다. 신앙인은 이단을 설득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이 말씀이 위의 말씀보다 더욱 신앙인들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다. 이는 앞으로의 삶이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이유로 인체에 생체칩을 넣어 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성경구절이다. 생체칩을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즉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인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숫자를 거절할 적절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이 숫자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하셨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살해될 것이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7년 대 환란을 거치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대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참 신앙인들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이 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한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는 죽임 혹은 처참한 대가를 치르며 견뎌야 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상의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시각이다. 이 시각으로 영상미디어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볼 때 적그리스도들의 이미지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 이미지의 의미가 현실에 나타나 통용되고 있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 III.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현실과 허구

#### 1. 영화 및 뮤직비디오



그림 1. 영화 다빈치코드(2006)

영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상으로 영화 속에서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영화의 결론을 피라미드 밑에 잠자고 있는 마리아 묘지로 결론 지으며 신성모독에 역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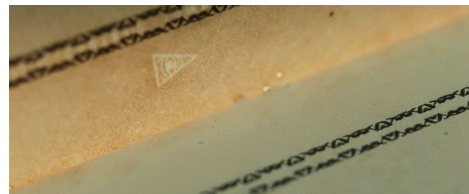


그림 2. 영화 천사와 악마(2009)

영화 속에서 바티칸 서고의 고서 속에 등장하는 전서안과 피라미드를 함께 등장시킨 예이다.



그림 3. 영화 천사와 악마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엠비그램으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다.



그림 4. 영화 몬스터주식회사

아이들 영화에서도 전서안과 비스트를 보여줌으로 전서안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려 한 시도이다.



그림 5.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3탄 왕의 귀환 편에 등장하는 전시안으로 프리메이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6. f(X)피노키오

국내 걸 그룹f(x)의 뮤직 비디오 중 피노키오라는 노래인데 전시안과 피라미드가 형상화 되어있다.



그림 7. 소녀시대 The Boys

국내 최고의 걸 그룹 소녀시대의 뮤직 비디오 중 The Boys라는 노래인데 피라미드가 형상화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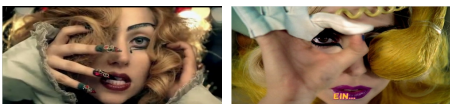


그림 8. 레이디가가

세계적인 여가수 레이디 가가의 judas와 Telephone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왼쪽 그림은 전시안을 상징하고 오른쪽 그림은 손가락으로 전시안을 상징하며 동시에 666을 표시하는 모습이다.

## 2. 뉴스와 광고



그림 9. 오바마 연설

미 대통령 오바마가 외국어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의 뉴스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림 10. 지구온난화광고

자주 보아온 공익 광고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으로 나무를 아끼고 탄소를 줄이자는 광고이다.



그림 11. 탄소세

화석연료로 인하여 지구가 온난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뉴스를 통하여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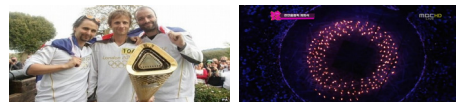


그림 12. 올림픽 성화와 성화대

런던 올림픽 성화봉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며 성화대에 점화 시 불꽃모양을 전시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게 보인 영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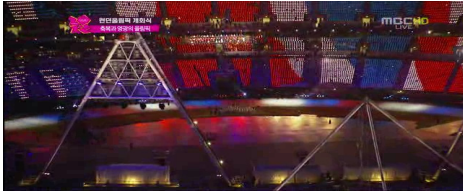


그림 13. 올림픽 주경기장 나이트 시설

올림픽 주 경기장의 나이트 시설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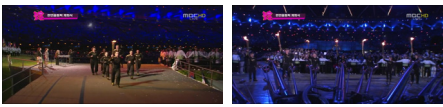


그림 14. 올림픽 성화 주자와 점화

올림픽 성화 주자를 7로 정하고 그들에게 검은 제복을 입힘으로 프림메이슨의 상징을 그들에게 보였다. 등장하는 7명을 피라미드 형상으로 대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5.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서에 등장하는 에덴동산을 연상케 하는 동산을 만든 후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善惡果) 나무 상징을 뽑아 버림으로 신의 권위를 인간이 대신하는 상징이다.

### 3. 인터넷



그림 16. 올림픽 마스코트 - 웬록과 맨드빌[11]

역사상 외눈박이 마스코트는 처음인데 전시안에 대한 상징으로 앞으로도 전 인류에게 전시안이 친근한 이

미지로 다가서려고 의도한 마스코트이다.



그림 17. 미국1달러 지폐의 전시안과 피라미드[12]

미국 1달러 지폐에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인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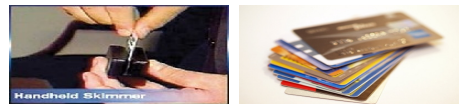


그림 18. 카드복제기와 크레딧 카드[13]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복제와 여러 장의 카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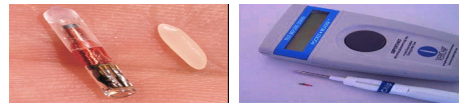


그림 19. 생체칩과 삽입주사기 및 리더기[14]

사람 몸속에 주입하여 신상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생체칩과 그 생체칩을 몸에 주입하는 주사기와 그것을 스캔 하여 읽는 리더기이다.



그림 20. 바하비치클럽과 생체칩 회원인식[15]

스페인의 바하비치 클럽에서는 생체칩을 주입한 VIP회원들에게 그것을 리더기로 확인하고 있다.



그림 21. 통일교 문현진 연설과 바티칸[16]

문헌진 천주평화연합(UPF) 공동의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국제리더십회의(I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IV. 현실과 허구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

##### 1. 영화 및 뮤직비디오

[그림 1]은 2006년 콜롬비아에서 제작된 영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피라미드 상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화가 시작되며 영화 마지막의 비밀을 암시하는 영상을 피라미드 밑에 있는 마리아의 묘지로 끝마친다. 이 영화는 예수그리스도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 마리아와 결혼하여 후세를 낳았고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들을 죽이는 집단이 있고 현재에도 후손들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론을박을 이끌어 낸 영화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피라미드 모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시안과 피라미드[17]가 일루미나티(Illuminati)를 중심으로 한 프리메이슨의 상징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루미나티는 카톨릭 예수회의 비밀이름으로[18] 일루미나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카톨릭 예수회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기 위해 프리메이슨 사상과 조직을 이어 받아 카톨릭 신자인 로올라가 만든 엘리트 조직이다[19].

일루미나티의 근원은 18세기 후반 독일의 아담 바이샤우트가 카톨릭 예수회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진보적 사상을 접하면서 새롭게 창안한 사상으로, 대학교수 시절 사회 엘리트들에게 소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는 당시 세계적 금융재벌이자 프리메이슨 유대인인 로스차일드가와 손잡고 1776년 5월 1일 정식으로 일루미나티를 창립했다.

일루미나티(illuminati)는 광명이란 뜻으로 빛을 받아 우주 만물의 법칙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는 ‘중세 독일의 자연신교를 신봉한 공화주의의 비밀결사’라고 되어 있다. 이 단체는 힌두교나 불교와 흡사한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를 깨달아 해탈한 사람’을 말한다. 즉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프리메이슨과 예수회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신세계 질서와 세계정부 수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들이 주도해 왕정을 뒤엎고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

이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이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됐다.

‘자유’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덕을 무너뜨려 혼란을 일으키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이고, ‘평등’은 왕의 권위에 도전해 혁명을 일으켜 일루미나티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박애’는 일루미나티 직원사이의 형제애로 깡패 직원간의 의리 같은 것으로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일루미나티가 세계지배를 위한 신경망이라 비유한다면 세계지배를 현실화 시킬 역동적인 근육조직이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이란 ‘자유석공조합’이란 말로 중세 시대 때 석조 건물을 짓는 건축 설계사 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 엘리트들을 흡수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음모집단으로 성장했다. 프리메이슨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언론사와 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CIA도 이들 관할에 있다[20].

[그림 2]는 2009년 콜롬비아사가 다빈치 코드 2탄으로 제작한 영화 ‘천사와 악마’ 중에서 일루미나티를 가장한 신부가 종교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 하버드 대학의 랭던교수(톰 행크스)가 그 비밀을 파헤치던 중 고서에 투명하게 새겨진 피라미드와 전시안 이미지이다.

[그림 3]은 영화 속에 나타난 앰비그램이라 불리우는 일루미나티 상징 문양이다. 앰비(ambi)는 ‘둘’이라는 뜻으로 양방향에서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림 4]는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외눈박이 괴물이 나오는데 역시 전시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 영화 이후에 런던 올림픽의 외눈박이 마스코트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에 있어서 훨씬 줄어든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림 5]는 반지의 제왕 3탄인 왕의 귀환 편에서 전시



안의 등장이다. 이 전시안도 프리메이슨의 한 상징이다.

[그림 6]은 국내 걸 그룹f(x)의 피노키오라는 뮤직비디오 한 장면인데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동시에 표현하는 이미지가 담겨있다. 국내의 영상에도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우리나라 걸 그룹을 대표하는 소녀시대의 The Boys라는 뮤직 비디오인데 이 뮤직 비디오 안에도 피라미드를 역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화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어 뮤직 비디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피라미드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다.

[그림 8]은 레이디 가가의 judas와 Telephone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전시안의 이미지와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눈에 갖다 대면 전시안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숫자 6을 세 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666이라는 사탄의 숫자를 의미한다.

영화에서는 노골적인 기독교의 신성을 부정하고 종교가 억지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그 이야기 소재와 배경으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등장시켜 전 세계인류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정의롭고 인류를 구원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반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인정하고 친근감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뮤직 비디오에서는 친근한 걸 그룹과 인기가수들의 뮤직 비디오에 노래의 가사와는 상관이 없는 배경과 춤 동작에 전시안이나 666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시야에 노출시켜 친근감을 유지하려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영상 미디어의 전략이다.

## 2. 뉴스

[그림 9]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외국어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육이 우수하다고 믿고 있다. 외국어 대학에서 연설하기 전에도 뉴스를 통하여 한국 교육을 여러 차례 칭찬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 내용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면 미래의 신 세계질서를 주장하는 그룹에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신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정치질서를, EU는 경제 질서를, 아랍연합은 에너지질서를, 호주는 환경질서를, 칠레는 농업 질서를, 남아공은 사회질서를, 인도는 통신질서를, 폴란드는 노동질서를, 카자흐스탄은 산업질서를, 말았고 한국이 교육질서를 맡았다. 그래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교육을 칭찬했고 이 사실은 전 세계 뉴스로 방송되어 전 인류가 한국을 교육이 잘 되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림 10]은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여 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익광고협회가 공동으로 펼치는 캠페인 광고이다. 이 광고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앞 다투어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청정에너지를 쓰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흑점 활동 때문이다. 지구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에는 아무런 과학적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냉온탕을 들락거리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지구의 산소의 70% 이상을 아마존 같은 숲이 아니라 바다가 공급한다.

지구온난화 회의론자가 아닌 영국 왕립기상학회 폴 하커(Paul Hadaker)와 크리스 콜리어(Chris Collier)교수는 “일부 연구자가 미래 지구 온난화를 거론하면서 과학적으로 타당성 없는 이야기를 한다.” 라며 “기상과 기후의 대재난과 헐리우드식 접근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경고했다[21].

미 하원을 통과한 2010년도 미국 군사비가6360억 달러인데 비해, 그토록 중요하다고 외치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향후 3년간 지원하겠다는 돈이 36억 달러라는 점은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 준다 [22].

[그림 11]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의 온난화에 적신호가 왔다고 뉴스에서 이미지로 내보내는 영상이다.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체코 대통령은 2009년 12월 18일 미 폭스 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과학이 아니라 지구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종교”라며 “소위 환경보호주의는 사람들의 습관과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현대판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환경보호주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정부를 가져오게 하려는 좌파 이념”이라고 지적했다[23].

이는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부를 재분배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시스템을 규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24].

[그림 12]는 런던 올림픽 성화봉과 성화대의 모습이다. 올림픽 성화봉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제작했고 성화대에 점화된 성화모습이 전시안을 이루고 있다. 런던 올림픽을 통하여 프리메이슨이 자신들의 상징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그림 13]은 올림픽 주 경기장의 나이트 시설인데 이 모양도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14]는 올림픽 마지막 성화 주자를 미래 스포츠를 쫓아갈 젊은 선수로 선발을 하여 프리메이슨의 검은 제복과 성화를 들고 뛰는데 뛰어가는 대형을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스포츠 분야에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이미지이다.

[그림 15]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식전 행사로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을 하나의 동산으로 표현하고 그곳에 나무 한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 이미지는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과 그곳에 존재하는 선악과(善惡果)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고 인류의 기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때 이 나무를 뿌리 채 뽑는다. 이 영상은 프리메이슨 자신들이 신의 영역을 대신하겠다는 의지의 메시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영상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 3. 인터넷

[그림 16]은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인 웬록(Wenlock)과 맨드빌(mandeville)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서 벌어진 스포츠 축제나 엑스포에서 사용되어진 마스코트에 외눈박이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마스코트하면 귀엽고 앙증맞으며 그 행사나 그 나라 이미지와 대변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상식이다.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하여 외눈박이에 대한 혐오감이 완화 되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 마스코트를 보고 울음을 터트린 경우가 부

지기수였다 한다. 맨드빌은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인데 시각 장애인들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선수들도 있었고 장애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아름다움을 뒷받침하기에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의 마스코트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 런던 올림픽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암시를 충분히 했다고 보여 진다.

[그림 17]은 미국 1달러 지폐이다. 이 지폐 뒷면에 ‘ANNUIT COEPTIS’라고 써어 있는 이 글은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Novos ordo seclorum”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며, 영어로는 “New World Order” 번역하면 “신 세계질서”라는 말이다. 라틴어 “노브스 오도 세크로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 곧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다. 이 문구는 193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eral Reserve Board)를 만드는 일의 성공을 기념하여 피라미드와 함께 적어 넣은 것이다[25].

미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소유가 아니고 유대계 프리메이슨이 소유한 민간 기업이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집트 신앙의 상징인 피라미드를 화폐에 넣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권력층과 서민층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피라미드 꼭대기의 빛을 발하는 전시안은 일루미나티(illuminat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세계정부를 수립해 1인 독재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속에 ‘MDCCLXXVI’라고 쓰여져 있는데 로마자로 1776년을 나타낸다. 1776년은 미국이 독립한 해임과 동시에 일루미나티가 정식으로 창립한 연도이다. 피라미드는 13층이며 프리메이슨이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 13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전시안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 있는 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타락하여 신에게 저항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도전하는 제2의 바벨탑운동으로 볼 수 있겠다[26].

[그림 18]은 현대 사회의 필수인 크레딧 카드와 카드복제기이다. 뉴스와 인터넷에서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도용하고 경제적인 피해

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테이프 대신에 마이크로 칩을 개발하여 마그네틱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들고 다니는 생활에서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간단한 것이 등장할 거라는 암시로 보여 진다.

[그림 19]는 쌀 한 알만한 크기의 생체칩과 이 생체칩을 몸속에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 그리고 이 생체칩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이다. 이 생체칩은 일명 베리칩(VeriChip)으로 총칭되며 RFID[27]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생체칩은 미국 ADS사가 개발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ADS사는 미국정부에서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이 칩은 쌀 한 알만한 캡슐 속에 넣어서 인체에 삽입한다. 이 칩의 구성은 128개의 유전자 코드, 축전지, 레디오코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RFID 기술을 통한 통제의 효율성은 시범적으로 동물들에게 삽입하여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RFID칩은 이 세계를 매우 혁신적인 사회로 변화 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트에서 2010년부터 상용화되고 있는 RFID기반의 재고 관리시스템이다.

이 칩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치와 재정상태, 건강상태 등 모든 것을 통제, 관리 할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는 전산화 되고 개개인에 부여된 13자리 고유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되어 종이 화폐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며 이 모든 전산정보는 관리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3층에 위치한 짐승(The Beast)이라 불리는 슈퍼 컴퓨터에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RFID기술로 집약된 이 생체칩을 몸에 넣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유비쿼터스 복지사회라는 이름 아래 생체칩의 편리함과 좋은 점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뛰어넘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생체칩을 받도록 유도 할 것이다.

신 세계질서의 단일정부에 의해 적으로 지명되는 경우, 정부는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의 ID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생활 능력을 통제 할 수 있다.

록펠러가의 닉 록펠러(Nick Rjockerfeller)가 세계 지배를 위해 모든 인류에게 생체칩을 넣을 것임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영상이 아론 루소(Aaron Russo)[28]에 의해 공개되었다. 아론루소 감독이 200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95분 런닝타임의 “America : From Freedom To Fascism”이란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닉 록펠러의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그중 일부이다.

<9.11테러 11개월 전의 발언>

“미디어야, 미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게 할 수 있어.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떠돌아 대면 결국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거지”

이 말은 닉 록펠러가 아론 루소 감독과 인터뷰 하면서 테러에 대한 전쟁을 하지만 적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웃고 있고 테러의 공격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한 이야기이다.

또 한 장면은 아론루소 감독이 질문한다. 당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닉 록펠러의 대답은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RFID칩을 심고 돈과 모든 것들을 칩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일을 반대하면 그 자의 칩을 꺼버리면 되는 거야”[29]

[그림 20]은 스페인 바하비치 클럽에서 생체칩을 주입한 VIP회원들을 리더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이미 생체칩이 상용화 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명제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려 들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림 21]은 바티칸 전경과 문헌진 UPF(Universal Peace Federation)천주평화연합 공동의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국제리더십회의(I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는 통일교 교주였던 고 문선명의 4남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는 국내에서는 이단시 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세계 종교계의 주류 리더로 있으며 세계 종교의 미래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

1992년 12월 1일 조지 H 부시 대통령은 UN에서 “앞으로 지구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UN은 신세계질서를 전달해야 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에게 맹세

하는 원리처럼 앞으로는 신세계질서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성직자들은 UN산하 조직인 UPF, URO(United Religion Organization) 세계 단일종교협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UN의 공증을 받은 종교지도자만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두고 2000년 7월 3일 <The New American>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교회가 세계단일종교 연합회에 가입하고, UN이 종교를 단일화 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성서적인 신앙과는 모순되는 견해를 보이며, UN이 얻을 수 있는 범신론자들이 바라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려는 것뿐이다. 멀지 않아서 지구주민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경고한 내용대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의 도구가 되어서 그 우상에게 헌신하는 꼴이 될 것이다.’[30]

이제 가까운 미래의 예배는 세계평화를 위해 UN에서 인준하는 종교지도자들을 통해 예배드리게 되며 현재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이들은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구실로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관한 법’을 세계 각국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에 법률 개정을 완료했고 미국은 2009년 7월 23일 의회를 통과 하였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성서에 등장하는 3가지 구절의 말씀을 전 할 수 없게 된다. 첫째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7절인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동성연애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둘째말씀도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되는 말씀으로 레위기 18장 22절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는 말씀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셋째는 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성경구절이다. 이 말씀은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로 타 종교에 대한 비

방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 할 것이다.

위 사진설명을 정리해 보면 영상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이미지는 세계적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가문과 석유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투기를 축으로 하는 록펠러가문의 행위로 귀결된다. 프리메이슨의 조직력을 일루미나티가 잠식을 하면서 그 조직의 핵심인 두 가문은 하나의 목표에 의기투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이 만든 민간단체가 지금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했고 바티칸의 예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와 정치, 경제에 대한 신 세계질서를 부르짖으며 전 인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이 의도적으로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표출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지구상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영상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미지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미디어의 강력한 전파 특성과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상미디어를 통하여 인류가 세뇌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들어난 이미지 영상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영상을 공부하는 젊은 학도들은 이미지가 의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이상으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혹은 잠재의식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서서히 그들의 존재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기후문제, 환경문제, 환율문제, 무역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단일정부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신 세계질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국제 통합 신분증인 마이크로 칩을 도입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된다. 개별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구

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세계적인 여론형성을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등장 시킬 것이다. 최근 G-20 회의에서 신 세계질서란 단어가 뉴스를 통하여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맞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이 성경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환란의 날에 사탄에게 굴복하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고 사탄을 의미하는 숫자가 666임을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생체칩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인지하고 있기에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미지와 현실을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이다. 단순히 과학의 발달로 온 인류가 하나의 단일 공동체, 즉 단일 정부가 수립되면 그들 말 그대로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 될 것이라는 환상을 인류에게 심어줌과 동시에 IT기반으로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는 생체칩을 인체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가 올 것이다. 스마트 폰이 보급 된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지만 초기에 출시된 제품에 비하여 지금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에 사람들은 편리하고 효율성이 좋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별 의식 없이 트렌드를 쫓아 간다. 이렇듯 스마트 폰이 우리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듯이 생체칩도 우리에게 편리함과 빠름과 효율성으로 다가 올 것이다. 사물과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신앙인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분명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회의 후원을 받는 이단 교파들과 기독교적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회참여와 협조가 당연하다 여길 것이다. 그것은 분명 성서에서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열거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탄소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각종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학습 시키는 이유도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아야 하고 나무를 이용한 종이의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화폐를 없애기 위함이고 화폐를 없애는 대신에 생체칩을 인간에게 주입하기 위함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인식하고 있으며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일반적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영상 미디어에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공통된 이미지의 현실이 다른 목적을 위한 허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 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나영,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용 플랫폼의 활용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78, 2011.
- [2] David Jr. Cha, *The Final Sign*, 예영, 2011.
- [3] 이집트 호루스 신의 전신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3의 눈은 부처 이마에 보석이 박힌 부분으로 우리가 전뇌를 통해 영통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피라미드 꼭대기는 영적인 곳을 나타내며,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계급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눈이 빛을 발하는 것은 성자의 광채를 뜻하며 진리와 권세가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전신안은 장차 세계를 다스릴 세계정부 지도자를 뜻한다.
- [4] 김택환, *영상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5] 김택환, *위의책*, p.19.
- [6] 김택환, *위의책*, p.43.
- [7] J. Fiske,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1982.

- [8] 김택환, 앞의책, p.75.  
 [9] 김택환, 위의책, p.87.  
 [10] 손병문 "기독교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p.9, 2000.  
 [11] <https://www.mascot-games.london2012.com>  
 [12] <http://cafe.naver.com/sd4979/39>  
 [13] <http://cafe.naver.com/mum1234/826667>  
 [14] <http://blog.naver.com/1224starwon?Redirect=Log&logNo=60140300288>  
 [15] <http://blog.naver.com/kctjpark?Redirect=Log&logNo=60163465859>  
 [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081215003604&subctg1=&subctg2>  
 [17]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이 이집트 신앙을 계승했다는 증거이며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18] DavidJr. CHA, 앞의책, p.109.  
 [19] DavidJr. CHA, 위의책, p.109.  
 [20] <http://blog.naver.com/ff1305?Redirect=Log&logNo=100011437048>, 그림자 정부, 화폐의 몰락, The Final Sign. 발췌 종합  
 [21] 강시영, 미래한국, 363호.  
 [22] DavidJr. CHA, 앞의책, p.52.  
 [23] 이상민, 미래한국, 359호.  
 [24] DavidJr. CHA, 앞의책, p.49.  
 [25] 이리유키마 최, 그림자 정부: 정치편, 서울: 해냄, 2008.  
 [26] DavidJr. CHA, 앞의책, p.28.  
 [27]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시스템.  
 [28] 미국 영화감독 및 제작프로듀서 1943년 2월 14일 - 2007년 8월 24일 암으로 사망, 9편의 영화를 연출, 제작함.  
 [29] "America : From Freedom To Fascism"영화 중에 아론루소 인터뷰 중.  
 [30] Publisher, *The New American*, p.38, 2000.7.3.

저 자 소 개

김 성 훈(Seong-Hoon Kim)

중신회원



- 1987년 8월 :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석사)
- 199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연출, 광고제작, 3D, 이벤트